



머리글

나명옥 바오로 신부 / 살레시오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어느 날 한 수녀님과 함께 어떤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현빈 못지않게 잘생긴 친구를 수녀님이 데려온 이유는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날을 동반했는데, 한계를 느껴 죄송하지만, 신부님께 부탁드린다고 데려온 것이다.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머리로 영리하고 지적 능력도 뛰어난데 자기 삶을 꾸려갈 에너지가 없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에 이미 깊은 상처가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6학년 때 하루는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서 그 순간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모에게 부탁해 죽기 전에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의 곁에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다행히도 건강이 회복되긴 했으나, 자신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은 어머니의 부재가 커다란 상처가 된 것이다.

그 후 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보고 있었으나 엄하고 잔소리가 심해, 오히려 반발심이 들어, 일부러 공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도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서 고모에게 맡겨지게 된다. 여차여차해서 겨우 졸업은 하고 취업을 했으나 빈번한 회식으로 술 마실 기회가 늘어가고 결국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것이다.

알코올 의존증은 한 잔이 과하고 천 잔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 잘 참다가도 한 잔 들이켜는 순간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게 된다. 결국, 일상을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복지관에 계신 수녀님을 만나 처음에는 단주를 잘해나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하자 결국 수녀님도 두 손을 들게 된 것이다.

나는 먼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 행사가 있으면 초대하여 참여하게 하면서 서로를 알아 갔다. 어느 날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여 교리와 함께 일 주일에 한 번씩 '여정'으로 자기 삶에 비추어 1년간 꾸준히 공부하며 만났다. 결국, 연말에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 뒤 본인의 피나는 노력과 신앙의 힘으로 현재까지 단주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오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 어떻게 한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실지 모른다. 그저 우리는 도구가 될 뿐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가 보다 하여 포기하고 싶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끝 간 데 없이 막막한 상황인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성인들 역시 같은 삶을 사셨다. 자신들을 하느님의 도구로 그저 내어놓을 뿐 하느님이 알아서, 당신의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다.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친구들과도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6월 둘째 주 월요일 13일 길음동성당, 셋째 주 월요일 20일 광장동 성당, 넷째 주 월요일 27일 양천성당에서 오전 10시 30분 교정사목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서 넷째 주 월요일까지 지역별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미사 일정은 8면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2기 인성교육



5월 18일(수)~19일(목) 서울남부구치소 남사에서 15명을 대상으로 2기 인성교육이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유나 강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알고 적극적인 경청과 배려하며 말하는 방법, 팀별 활동으로 다양한 유형의 성향 진단과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과 주도적인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알찬 교육이었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성향을 깨닫고 자신을 존중하는 힘을 키워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



5월 19일(목) 성앵베르센터에서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가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엄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사목국의 13개 위원회가 부스를 마련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연수에 참석한 19명의 서품 2년 차 사제들은 6개 조를 이루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스에 한 차례씩 방문하여, 활동사진과 50주년 기념 영상을 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2년 차 사제들이 교정사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세례식



6월 7일(화) 서울남부구치소, 16일(목) 서울동부구치소 여사에서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교 활동이 중단되었던 동안 통신교리를 수료한 수용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봉사자와 함께 자리한 수용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축하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고, 베풀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

- 제22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을 마치고 -

김경연 소화데레사_ 제22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 교육생

저는 오랫동안의 직장 생활과 육아로 쉼 없는 생활을 해 오던 중 올해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서 막연하게나마 봉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주보에서 교정봉사자교육 안내를 보고 자연스러운 이끌림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4개월여의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 분야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잘 모르던 세계를 알게 되어 많은 것이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신앙적 깊이나 사회 통찰의 안목이 남다른 다양한 경력과 가치관을 가진 여러분들과의 만남 또한 새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러한 모든 만남과 이해는 “사람”을 향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봉사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나의 작은 시간, 노력의 나눔이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봉사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라고 해서 거창한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봉사를 통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격리된 인간에게는 재미 한 마리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유동범)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타고르)

교육 내내 자주 들었던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6)는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앞으로 봉사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또는 작은 눈빛 한 번으로도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시간은 나에게 그분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교육을 받은 한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 이끌어주신 것도 결국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며 모든 것이 감사의 은총으로 느껴집니다.

매주 알찬 내용을 채워주신 신부님, 수녀님, 강사 선생님들, 매주 든든한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창업자금 지원사업

-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지원 사업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산하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한 지 3년 이내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무담보대출은행으로 대출 자본금 지원을 통해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위해 창립된 은행으로 출소자의 성공 창업을 위하여 「2022년 출소자 창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사업 요약 및 신청 대상

구 분	요 약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 융자지원 연 0.5%, 12개월 거치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 교육 및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멘토링과 온라인 창업교육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탈락 처리하며, 심사 결과 교육 훈련 면제 가능 ● 경영지원 : 자금 상환 시까지 경영진단
사업 용도	● 임차자금, 운영자금 용도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자 ● 사업장 또는 창업예정지가 서울, 경기, 인천 창업 예정자

2. 진행 절차



3. 접수 방법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 상환 가능성, 자립 의지 등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 조정될 수 있음.
접수기간	● 사업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서류심사, 현장실사 1차 심사(면접)	● 서류 접수 후 수시
멘토선정	● 1차 심사 결과 합격자에 한함
멘토링교육 온라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멘토 선정 후 멘토링 교육 진행 ● 서울시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http://edu.seoulsbdc.or.kr) 관련 업종 온라인 수강 신청 과정 이수 후 수수료증 제출

최종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업종별 멘토링 교육 진행 후 멘토 추천으로 개별심사)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접수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20길 27 빛의 사람들 2층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71번지)
상담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쁨과희망은행 02) 923-4726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www.catholic-correction.co.kr)
주의사항 (필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류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통지합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탈락 처리됩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대리인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각 탈락 및 심사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구비서류 및 발급기관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기 관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 등본 		주민센터 민원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내용 포함하여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무상거주인 경우 확인서)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 사본(앞뒷면)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소(수용) 증명서 		출소 수용기관
사업 및 신용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별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등 	주민센터
	실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지역 고용센터
	한부모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민원24
	다동이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다동이카드(사본) 	개별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 취득전 여권 사본 ■ (간이)귀화신청서 사본(허가서) 	개별

※ 사업신청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내방하여 도움을 받으며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일반 유흥 주점업 등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천세일 루도비코 신부님 前

따사로운 햇살에 봄날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각양각색의 꽃들이 영롱하게
피어나겠지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며 찬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됨에 터없이 감사와 행복감을 얻으며 창회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
위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때마다 보내주시는
정성깊은 선물은 물론이요,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심에 고개숙여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올리는 묵주기도와 성가의 울림속에서 항상 루도비코
신부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참회하며 기록하고 있는 자작시중 '사랑은 비로소'를
정성껏 동봉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필중인 '옥중 비망록' 시집이 훗날 완성되면 참회의
순간을 장미에 엮어 하느님 제단에 바치고자 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하느님의 은혜로움이 루도비코 신부님의
영성안에 풍성한 포도송이처럼 머무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022 . 3 . 12

서울남부에서 신부님 바오로 드림.

百忍堂中有泰和
壬寅年三月青鑑



사랑은 비로소

詩人

사랑하는 것들만
사랑한다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것들만
사랑한다
어찌 행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
날카로운 아픔을
함께 견디며 위로하는 일
그대 위해 기꺼이
장엄한 믿음을 세워주는 일
사랑은 비로소
위대한 사랑이 된다.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전하며

2022년 8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8월 1일(월)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8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 중서울 길음동성당
▶ 8월 22일(월)		/ 서서울 양천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7월 1일(토)~2일(일) 후원회원 모집 미사 / 해방촌성당
- 7월 4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10:30
- 7월 1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길음동성당 / 10:30
- 7월 18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광장동성당 / 10:30
- 7월 2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양천성당 / 10:30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5/13~6/15)

2022년 5월~6월에는 **故 이일웅, 강은빈 소화데레사, 박정애 플로렌티나**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송자 릴리안, 김지아 도미니카, 김창연 레오, 김현미 가브리엘라, 송정의 데레사, 오채림 라파엘라**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